

TEKTON INVEST

Biweekly Report

22 Apr 2024

지정학적 위기가 불러온 변화 - 방위산업 중요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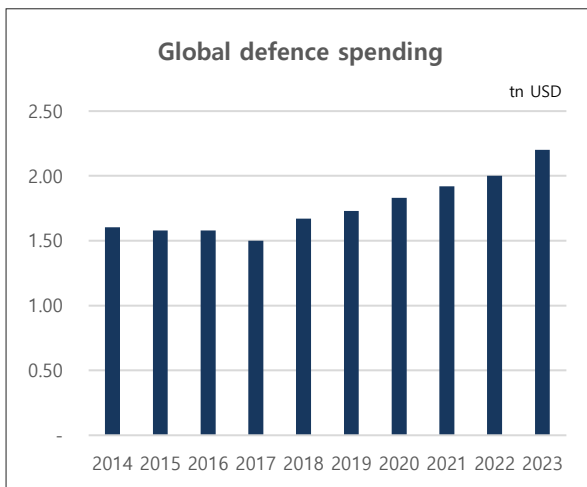
Summary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이 확대되면서 각 국은 자체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방위산업의 지형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위가 공고한 미국의 방산기업은 물론, 유럽과 일본 등 권역별 방위산업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정책적 변화와 함께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ndustry

글로벌 국방비 지출 사상 최대

2023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2조 2천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 수준의 국방비가 사용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되며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도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는 물론 안보 측면에서도 경쟁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IISS)

국가별 국방비 증액 움직임

주요국들의 국방예산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 의회에 8,952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안을 제출했고, 중국 국무원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66조 위안에 달하는 국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올해 나토(NATO)가 제시한 GDP 대비 국방비 비중 목표 2%를 넘길 것이라 공언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024년 방위비 예산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 규모가 7.95조 엔(+16.5%yo)에 달합니다.

Value Chain

미국 외 지역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세계 각 국이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글로벌 방위산업의 지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위산업 기업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시장 지위가 공고한 미국의 방위산업 기업은 물론 영국의 BAE Systems社, 독일의 Rheinmetall社 등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유럽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방위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방위산업 기업도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입니다.

MHI

주가 +64.9% YTD
시가총액 40.7조원



Mitsubishi Heavy Industries (7011:TYO) 최근 3년 주가 흐름

출처: Financial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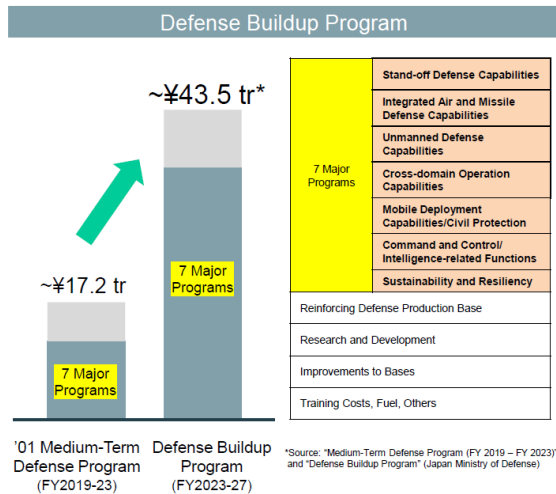
**일본 방위산업
1위 기업**

Mitsubishi Heavy Industries(MHI)는 일본 1위 방위산업 기업입니다. 항공, 미사일, 전함, 전차 등 방위산업 전반에서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MHI는 방위비를 늘리는 일본의 정책적 변화와 함께 지난해부터 방위사업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된 FY2023('23.4~'24.3) 수주 가이던스는 1조 9천억 엔(+170%yoy)에 달합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방위사업 전략 발표에서 연간 매출액 5천억 엔 수준에 머물렀던 사업부 실적이 향후 3년 간 1조엔으로 2배 증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ey Insight

**일본의 정책 전환
- 무기 수출 확대**

1967년 이후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계승해온 일본은 2014년 아베 내각 당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하며 제한적 허용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무기 품목과 수출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 Mitsubishi Electric社가 제조한 방공 레이더를 필리핀 국방부에 납품하며 완제품 방위장비 첫 수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Mitsubishi Heavy Industries(Nov 2023)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 발표**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방위력 증강 중기 계획(Defense Buildup Program)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장비구입에 43.5조 엔을 투자하는 것으로 직전 계획('19.3~'23.3 5년간 17.2조 엔)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조 엔 규모의 장비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위력 조기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trategy

**글로벌 방산기업의
변화에 주목**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들의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 상황을 기점으로 각국의 국방력 강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드론, 전동화, AI 등 새로운 무기체계로의 전환 투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2%로 상향하고 방위산업의 마진 개선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는 등 산업 활성화 의지가 강합니다. 주요 방위산업 기업의 수주, 실적 개선에 주목해야겠습니다.